

## Role of the Hospital Library

# 病院圖書館의 役割

—現況과 問題點을 中心으로—

## 류 광 남

(한강성심병원 도서실장)

編輯者註：本稿는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 학술대회(10月23日)에서 發表된 主題講演 要旨이다.

### 1. 머리 말

병원도서관(Hospital Library)은 학문배경별 구분으로 醫學圖書館(Medical Library 혹은 Health Science Library)의 일부라 할 수 있고, 形態의in 觀點에서 一般社會, 기관, 단체와 같이 特殊圖書館에 屬한다고 말할 수 있다. 醫學圖書館은 大體的으로 의과대학도서관(치과·간호대학 각 의료전문학교 도서관 포함)과 병원도서관 그리고 各種 醫學團體 도서관(연구기관, 협회 등)으로 形態의in 區分을 할 수 있다. 병원도서관에는 다시 의과대학부속병원과 대학에 속하지 않는 종합병원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주 대상으로 잡은 것은 대개 Small Medical Library로 지칭되는 병원도서관(의과대학 부속병원도서관이나 학교와 분리된 병원도서관은 포함)이다. 국내 의학도서관은 시설이나 인원 자료년에서, 의과대학 도서관은 양적 질적인 면으로보아 기타 대학도서관과 거의 대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병원도서관은 개관 역사에서부터 日淺하여 초창기 테두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에 속한 회원도서관중<sup>1)</sup> 주로 위에서 말한 병원도서관 16개처의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진함으로써 본래의 도서관 역할을 개괄적이나마 천착(穿鑿)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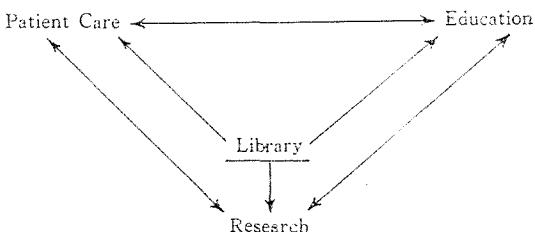
### 2. 병원도서관의 특성

병원도서관은 주 이용대상을 병원의 구성원인 스텝, 수련의사, 간호원, 의료기사실습학생, 행정직원, 그리고 입원환자로 잡는다. 여기서 병원의 존립목적이 환자진료에 있음을 不聞可知임으로 진료(Patient Care)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도서관은 병원의 세가지 기능 환자진료 교육 그리고 연구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존립한다」<sup>2)</sup> 일반도서관과 같이 자료의 집적에 의한 可用에 따라 일상진료를 돋고 수련의사, 의료기사 간호원등의 現職敎育(In Service Education)을 遂行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된다. 병원은 근래에 이르러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 병원은 近來에 이르러 企業化되는 경향으로 認識되고 있으나 그 지역사회와의 건강 유지와 교육기판으로서 역할 또한 자못 크다.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의술의 Mechanism뿐만 아니라 感情的인 激化 또는 필요한 것이고 이런 意味에서 社會에로의 復歸를 돋는 修練의 場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턴, 페지넷의 수련의 교육을 도우는 반면, 환자의 재활교육(Rehabilitation Education)을 뒷받침 해야 된다. 도서관은 대개 수련의 교육병원단위의 종합병원인 연유로 CPC등 학술집담회, 사인겸토회의(死因檢討會議), 강의등을 도울수 있는 자료, 즉 기본적인 Textbook, 다양한 학술잡지, 스파이드, 필름 스트립등의 시청각 자료를 꽂고루 비치운용 할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반 情報의 중추적役割을 다음 表<sup>3)</sup>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1>



### 3. 資料의 選定과 具備

前述한바대로 우리네 병원도서관은 그 設立年限이

1) 35개 의학도서관회원이 있다. (1976. 10)

2) Bloom Quist, Harold(and others) "Library Practice in Hospitals": a basic guide. Cleveland,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2) p.52.

3) Ibid., p.53.

日淺함과 專門職도서관인의 未備와 경영자의 没理解로 本來의 役割에 부응할만큼 확고한 軌道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遼遠한 實情이다. 몇몇 유수한 의과대학 도서관을 除外한 종합병원 도서관은 大同小異한 규모로서 諸分野의 補充과 熟識의 도서관인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학협의회 Internship에 대한 인정을 예시하는 "Essentials of an approved Internship"<sup>4)</sup>에 依하면 「병원직원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具備는 필수적이다. 도서관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운영이 요구되고 따라서 기본적인 교과서, 단행본, 참고도서의 수집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임상분야의 대표적인 의학잡지를 구비하고 인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비치가 요망된다. 필자가 조사한 서울시내 대표적인 의과대학도서관 5개처와 종합병원도서관 5개처의 76년 현재 장서의 평균치는 의과대학도서관의 경우, 단행본(제본잡지 제외) 12,000권, 의 국구입 학술잡지 360종이었고 병원도서관은 단행본 2,040권 잡지 91종이었다.

미국의 유수 의학잡지에 실린 문현에 의하면 1964년 통계로 의과대학 도서관 단행본 평균 소장권수는 77,000권으로 최소한 100,000권은 갖춰야 된다고 했고, 치과대학도서관의 경우 단행본은 13,000권으로 25,000권의 비치를 원장, 또한 400페드 규모의 병원도서관은 평균 2,657권으로 10,000권은 소장해야 된다고 했다.<sup>5)</sup>

〈표 2〉 資 料 對 比

		단행본 (권)	잡지 (종)	비 고
의과대학	(1964년) 미국	77,000		1964년 미 전지역 통계
	(1976년) 한국	12,000	360	서울시내 대표적인 의과대학 5개처
병 원	(1964년) 미국	2,657		미국 잡지 통계는 미확인
	(1976년) 한국	2,040	91	1976년 구입 학술 잡지에 한함(서울 5개처)

여기 표 2에서 對比한 한·미 자료통계는 조사년도의 격차가 12년간이라는 점과 미국은 전체도서관을 집계한 것이고 우리는 임의로 도서관 각 5개처를 집계 했다는 점에서 對比의 의의가 약간 되나 어떤정도의 추세는 감지할수 있겠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대상으로 잡은 소규모 의학도서관 즉 병원도서관의 자료구비 실정은 단행본 2,040권과 잡지 91종으로 언뜻 보기에도 최소한도의 자료는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실제로는 불합리한 평균치인 것이다. 전체병원 도서관의 통계가 아니고 임의로 선정한 서울소재 5개처 병원도서관의 경우로 기

타 수개처는 평균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여전으로 보아 초창기 도서관으로서 자료 인원 스페이스 등과 함께 해결 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중첩해 있다.

우선 도서관인은 대개 한정된 예산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서선정의 혜안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사서는 보통 전문적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보통 수년간의 현직 경험과 아울려 기초적인 의학 Terminology나 임상각과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어느정도 소임을 수행할 수 있다. 몇년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도서선정은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대체로 도서관 사서는 일정량의 예상이 확보 되었을 경우 선정업무를 일단 임상각과에 넘겨서 구입목록을 작성하나 적어도 초창기나 이제 막 개관하는 도서관은 기본도서의 선정만은 사서가 하여야된다. 왜냐하면 기존도서가 무엇이 있고 적절한 장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임상 각과 장도 대체로 그들 자신이 현재 필요한 도서부터(보다 전문적인) 선정하여 기초장서를 등한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서에 의한 기본장서 구비에 대한 出處는 필자가 아는데로 간편한 방법으로 참고 가능한 문현 몇 가지가 있다.<sup>6)</sup>

의학도서관에 있어서 잡지는 그 이용도로 보아 단행본 보다 월등하게 높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자료의 존도를 살펴보면 단행본이 18%이고 축차간행물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차간행물 82% 중 발행국별 이용도는 국내문현이 12.2% 외국문현이 87.8%로 압도적으로 외국문현의 의존도가 높다.」<sup>7)</sup> 필자의 견해로 수련병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상각과에 권장하는

4)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Directory of Approved Internship and Residencies 1973—1974." (1973) p.362.

5) 별다른 통계가 없어 其中 전화 문의가 된 서울大, 연대, 고대, 카톨릭의대, 이화여대 5개대학 도서관과 적십자 병원, 고려병원, 필동성심, 한강성심, 국립의료원 5개 병원 도서관을 모멘로 산출했다.

6) Norman, Q. Brill. Support for Health-Science Libraries. JAMA. 194 (1965), p.199, Dec.

7) Brandon, Alfred N. "Selected List of Books and Journals for the Small Medical Library" Bull. Med. Libr. Assoc. 63(2) (1975) pp.149—172. 단행본 450여 권, 잡지 140종 수록.

Stearns, Norman S., and Ratcliff, Wendy W. "An Integrated Health-Science Core Library for Physicians, Nurses and Allied Health Practitioners in Community Hospitals. New Eng. J. Med. 283 1489—1478(1970) 잡지 80종 단행본 110권 수록.

8) 이승하, "의학도서 및 잡지목록의 선택", 의학도서관, 2(1) (1975) p.11.

의학잡지와 도서실에서 추계한 각과 공통잡지 수종을 합해 병원도서관 잡지구독 종수는 적어도 100여종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현재 병원도서관은 2~3개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50~70종으로 알고 있다)

의학도서관의 자료구비는 출판정보에만 의존하기에는 不足하다. 여타 도서관의立場도 그러하겠지만 대체로 현대도서관은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자료를 이용자가 보다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마이크로카드, 테이프등의 시청각보조자료(Audio-visual aid materials)도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 자료가 된다.

현재 AV자료를 적절히 구입 활용하는 의학도서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의 구입 루트도 어렵고 각종 Projector 등 機材의 비치가 동시에 행해져야하므로 예산면에서도 容易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출판자료의 보증이 대략 끝난 도서관은 이의 구비활용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먼저 一次단체로 각과에서 臨床케이스로 준비 비치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종합 수집하여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면 조속한 他資料의 구비에 始發點이 될수있을 것이고,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 도서관이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 내에서 행하여 지고 각종 集談會 즉 CPC(Clinico-Pathological Conferences), X-ray Conferences, Record and Fatality Conf., Journal Club Conf.와 학회, 강의 등에 도서관의 참여를 요구하게 이를 것이다.

#### 4. 資料의 運用과 奉仕

##### 1) 참고봉사

「도서관에 있어서 봉사활동의 순환과정을 서비스 사이클(Service Cycle)이란 말로 표현한다면 그 서비스의 주축은 참고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sup>9)</sup> 「참고사서는 한 주제에 대하여 교수나 대학원 만큼 깊은 지식을 갖일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걸잡이는 될 수 있다.」<sup>10)</sup>

참고봉사에 대한 이러한 말들은 자료의 운용에 있어서의 보존역할이 열만큼 중요한가를 시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병원 도서관은 혼각을 다투는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文獻을 적시에 공급해 줘야 하는 기회를 접할 때 이의 자연이나 두절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봉사나 자료 유인봉사(Document Delivery Service)는 이런 의미에서 조사자(Librarian)에서 이용자(Physician 의사)로의 정보이입 과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의학사서는 이를 위해 各種 二次資料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습득에 소홀히 할수없다. 수련의사들은 「Index Medicus」에 대한 이용방법에 미숙하기때문 이에 대한 지도나 보조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근무년한의 日淺함과 의학전문지식의 미흡으로 대체로 현 의학사서 (특히 병원도서관)들은 수수방관 상태에 있는것이 많지 않다. 2次자료 이용에 대한 세미나등을 통해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될 것이다.

문헌결색에 대한 自館解決이 용이하지 않고 조사기간이 넉넉할 경우, WHO MEDLINE Centre에 의한 조사의뢰를 할 수 있는 첸널이 있다.<sup>11)</sup> 조사에 대한 모든 것은 무료이지만 왕복 우편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0일) 필요한 불편한 점이 있다.

##### 2) 복사봉사

대체로 병원도서관은 문헌조사 의뢰에 필요한 잡지백넘버의 대부분으로 의뢰 전수의 근 80%(필자 도서관의 경우)를 유수한 他醫科大學 도서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서관협의회의 綜合目錄(1974年 度 제4판)은 이제 歐·美系 잡지는 물론 日本, 국내잡지를 망라하여 수록되어있어 복사봉사를 위한 걸잡이로 손색이 없다. 보통 병원도서실 인원은 1~2명이 고작으로 수시 他館자료의 복사에 시간활애가 어려우나 도서관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1회라도 종합하여 제공 할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Back Number보증에 도서관 간의 상호협동이 진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의학사서는 백방으로 이의 보증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 3) 열람봉사

병원도서관은 의료진의 많은 행정직원과 입원환자가 도서관이용자의 한층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교양함양과 시간 선용을 위해서 교양서적도 갖춰야 될 것이고 실무참고도서류로 법전, 백과사전, 경리부처나 관리부처를 위한 회계, 운영, 병원행정, 심지어 전기 기관설을 위한 工學技術書籍까지 具備해야 된다.

따라서 병원내 인원의 거의 반을 점유하고 있는 입원환자 對象의 教養物도 갖춰야 되리라고 본다. 筆者가 알기로 병원도서관의 환자를 위한 貸出은 全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의 積極的奉仕의 見地에서 또는 利用者層의 확대에서 환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의 봉사는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원은 환

9) 김세익,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하여 “도협월보” 11 (7) : (1970) p.205.

10) ibid., p.206.

11) 스위스 WHO 본부 MEDLINE Centre에 Request Search Form을 보내면 완전 Free Cost로 검색봉사를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수개처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자진료에 있어 기술로 인한 진료 뿐만아니라 완전한 사회복귀로 인도하기 위한 정신적 교육도 간파 할 수 없다.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회복 기의 무료한 시간을 券을 통한 선용으로 치유를 도와 줄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속한 도서관<sup>12)</sup>은 일주일에 1회 각병실을 순회 교양도서의 이동대출을 행하고 있다. 먼저 소장하고 있는 교양도서목록을 각병실에 비치하고 각종 스테이션의 간호원을 통해 대출전일 회망도서를 입수, 순회대출하여온바, 그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는 병원의 봉사하는 인상(IMAGE)을 환자에게 심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때문 경영자측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 5. 도서관과 행정조직

「도서관은 이용자료와 이의 운용기술에 대한 지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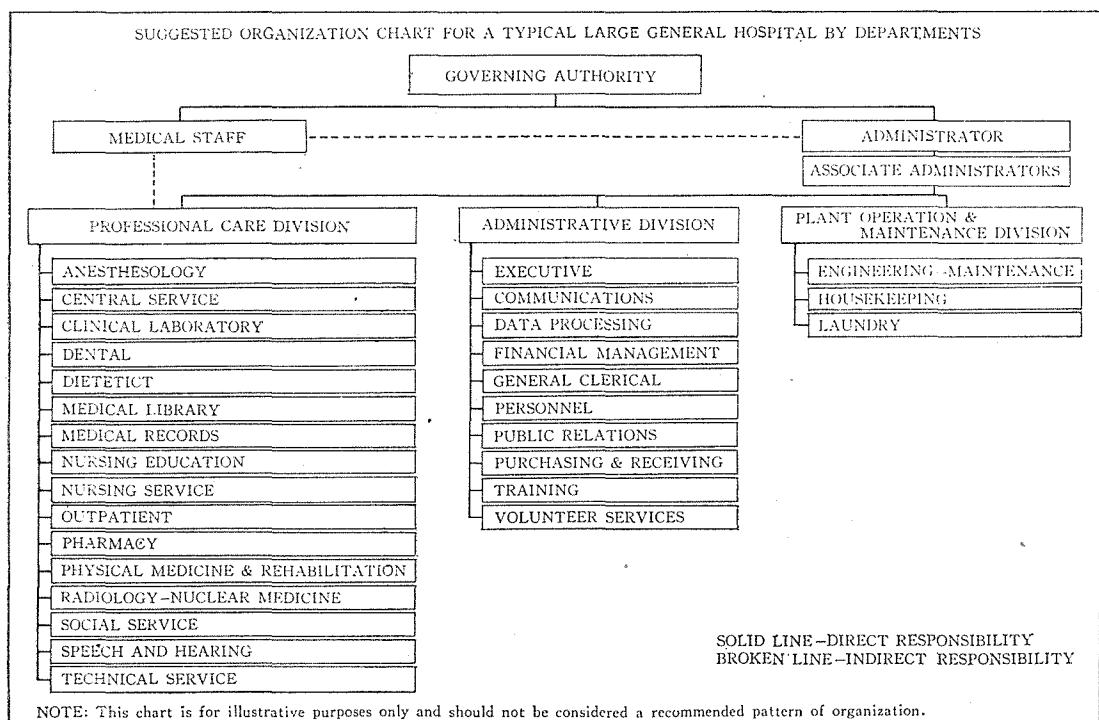
도서관의 성공적운영을 위해 필수적 이라는 사실은 분명 하지만, 병원행정분야에 대한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않된다. 그러나 행정구조의 파악은 필요하다」<sup>13)</sup> 대개의 병원도서관은 훌륭한 사서가 있다해도 이를 뒷받침해 줄 능력을적인 행정조직과 경영자측의 배려가 없이는 곤란하다.

병원은 두개의 지휘계통(Authority Line) 조직이 있다. 진료부서와 행정관리 부서이다. 도서관은 염밀히 말해 두 Line중 어디에나 속한다고 말할수 없다.

도서관이 진료를 돋는데 최우선에 둔다고 전술 한바에 그 이용자의 대부분을 의사(Physician)가 되며 이들과 빈번한 접촉에서 본다면 보다 의료진에 밀접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의료진과 함께 학술적인 연구를 補助하고 또한 이를 위해 不斷한 考究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려하다.

〈표 3〉

미국 병원의 Organization Chart의 1예



NOTE: This chart is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recommended pattern of organization.

Source: page 15 in U.S. Department of Labor. *Job description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for hospitals and related health servic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표 3<sup>14)</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도서관은 Professional Care Division)에 속해 있다. 우리도서관 계의 설정은 애매모호하여(사무적업무의 전문성을 度外視하여) 사무적系列로 통칭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떤 병원은 도서관이 사무처 소소관으로 결제 서류 과정도 4~5단계를 거치는 곳이 있기도 한 形便

12) 한강성심병원도서관은 1주 약 40여권이 환자대출로 이용되고 있다. 순회대출일 이외에도 간호과와 협조로 간호원 또는 환자자신이 직접 대출해가기도 한다.

13) Bloom Quist, Harold. "Library Practice in Hospitals" Cleveland,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2) p.57

14) ibid., p.58.

이다. 대체로 병원은 그 수입의 대부분을 진료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진료부서와 사무행정직의 관계는 미묘한 마찰을 왕왕 빚고 있는 듯 보인다. 도서관은 도서구입면에서도 의료진의 요구에 의한 지출을 행정부서진에서 경제할 수 있는 여건 하에 종종 놓이게 됨을 경험한다. 대개 無形의 成果로 인식되기 쉬운 도서관 업무는 경영자나 행정직부서에 과소평가 당하기 쉽다. 이런 제반 여건 하에서 도서관은 보다 上位組織 즉 원장 직속하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책임자도 최소한 행정직부서 책임자 정도의 職級을 인정 받아야 된다. 대체로 병원도서관은 관장급은 정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통 원내교육위원회(수련의 교육전담)의 장(長)과 같은 진료스탭의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맡아 지휘할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입장은 이보다 경력이 인정된 도서실 책임자가 있을 때, 실제적인 업무 기획, 수행을 시종 獨自의 으로 전담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간접지휘 라인(Indirect Authority Line)으로 「도서관자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예산확보등 어려운 문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6. 맷는 말

위에서 기술한대로 병원도서관의 현주소는 자료 인력 봉사운용, 행정조직과의 관련성에서 外廓地帶임에 틀림없다. 이외 언급하지 못한 人力, 대우, 서비스, 스페이는 문제 등도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많은 難題들이다. 선진국의 MEDLINE System에 의한 수많은 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피안의 불 만큼 아득한 얘기 같게 보인다. 혼히 引用되는 「도서관인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회생정신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Murrison의 말 테로 꾸준한 인내와 열의로서 하나 하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갈 때 우리가 배운 理想의 도서관의 역할을 떠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병원은 환자진료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도모하는 仁術의 장소, 奉仕의 場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 會費와 出版物 代金을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은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代金 및 76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

###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 사람들이 本會 趣旨에 賛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擦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됨.